

2005년 10월 서울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자책.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실제 제대로 사용해 본 사람은 많지 않다. 더구나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전자책이다. 이번 호에서는 전자책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매력과 이익을 작은 이야기로 구성했다. 기존의 종이책에서는 극복할 수 없었던 6가지 제약(Constraint)들이 전자책을 통해 극복되어 가는 과정을 소개한다.

글 이해성 에피루스 부사장

연재순서

1 동그라미 세 개와 책

2 2005년 10월 서울에선

3 비디오 · 캠코더 · 휴대폰과 20년

글 머리에 밝힌 6가지 제약(6C)이란 Time-Space Constraint · Physical Constraint · Platform Constraint · Lead-Time Constraint · Haystack Constraint · Media Constraint를 의미한다.

먼저 Time-Space Constraint는 '시공의 제약'이다. 어떤 독자가 자신의 종이책을 언제(Time) 어디서나(Space)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직접 휴대를 하고 다녀야만 한다. 만약 그 독자가 자신의 종이책을 집에 두고 나왔다면, 그 독자는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한 그 책을 사용할 수가 없다. 즉 일반적으로 종이책은 그 사용에 있어서 시간과공간의 제약을 받게 된다.

Physical Constraint는 '물리적 제약'이다. 종이책은 물리적인 실체로 존재한다. 따라서 책의 양이 증가할수록 물리적 실체에 해당

되는 저장 공간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며, 무거워진 질량에 따른 이동 비용의 증가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즉, 종이책은 물리적인 실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질량과 부피 그리고 휘손이라는 물리적인 제약을 가지게 되며, 이는 높은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Platform Constraint는 '기반의 제약'이다. 종이책은 사실 기계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 기반의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 대신 앞에서 언급한 '시공의 제약', '물리적 제약' 등 여러 가지 제약에 노출돼 있다. 그런데 종이책의 이런 제약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전자책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전자책들과 현재의 일부 전자책들은 한 가지 큰 제약을 극복하지 못했다. 바로 '데스크톱에서만 돌아가는 전자책'이란 진부한 개념이다. 이런 경우는 전자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휴대성이 종이책보다도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책이 가지는 '기반 종속성'을 완전히 타파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독자들이 구입한 책을 더 이상의 추가 비용 없이 데스크톱 환경, 각종 PDA 환경, 각종 휴대폰, 각종 전자사전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기반의 제약'이 극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Lead-Time Constraint는 '공급 시간의 제약'이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서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종이책을 구입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 구매가 가지는 거의 유일한 단점이 구매 즉시 그 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적어도 주문 후 며칠이 소요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만약 해외에 주문한 책이라면 적어도 보름 정도의 배달 시간을 각오해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배달 시간, 즉 주문 이후에 제품을 직접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는 공급 시간의 제약이 종이책에는 존재한다.

Haystack Constraint는 '짚단 속 바늘 찾기 제약'이다. 종이책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책을 직접 뒤져서 찾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지 검색이 있지만, 서지 검색을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람의 실수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바로 이러한 검색의 어려움, 즉 자신이 원하는 책이나 어떤 책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짚단 속 바늘 찾기 제약'이라고 부를 수 있다.

Media Constraint는 '미디어 제약'이다. 종이책에서 구현 가능한 미디어 형태는 글자와 그림뿐이다. 반면 사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미디어 요소는 이것 외에도 동영상 · 음성 · 음향 · 음악 등 여러 가지다. 그런데 글자와 그림은 오직 사람의 시각적인 기능만을 이용하는 것인데 때로는 이러한 기능들이 제약을 받는 환경이 존재한다. 사람의 시각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장애의 경우와 시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그것

이다. 결국 종이책은 사람이 시각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디어 제약'이라고 한다.

출장을 자주 다니는 K

Time-Space Constraint 극복기

지금 K는 동료 O와 함께 경부선 KTX에 숨을 헐떡이며 앉아 있다. 돌이켜 보면 정신없는 아침이었다. 오늘도 아침 출장 기차를 놓칠까 봐 가슴을 쓸어내리며 택시 속에서 열심히 다리만 굴리던 반복되는 이 현실. 늦잠 자는 버릇을 고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O를 바라봤다. O 역시 아침에 정신없이 나온 탓인지 머리가 많이 헝클어져 있었다.

O는 지나가는 물품 판매 승무원에게 조건신문을 하나 구입했다. 그리고 K를 바라보며 겸연쩍게 웃으며 "이번 출장만큼은 좋은 글 좀 읽어 보려고 어제 베스트셀러 책을 하나 구입했는데, 깜빡 잊고 나왔네. 집에 다시 갈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보니 K도 자신이 최근에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를 구입한 기억이 났다. 그리고 그 순간 K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K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었다. 그리고 어제 구입한 '출세하고 성공하자!'란 베스트셀러를 휴대폰으로 확인했다. 물론 어제 구입할 때 미리 휴대폰으로 책을 받아 놓은 것은 결코 아니다. 어제만 해도 회사의 데스크톱 컴퓨터로 그 책을 읽고 있었다. 과연 휴대폰에서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K는 어제 자신이 데스크톱 PC를 통해 읽던 책을 지금 휴대폰으로 내려받았다. 그리고 책을 열었다. 역시 기대했던 대로 제대로 잘 보였다. 옆자리에 있던 O는 눈을 깜박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한 마디 던진다. "대끼리!" O는 고항이 대구였던 것이다.

이사를 자주 다니는 L

Physical Constraint 극복기

L은 식은땀을 흘리며 입으로 욕지거리를 하

다가 잠에서 깨었다. 악몽이었다. 꿈에서 L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힘겹게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지방출신의 가난한 유학생으로 시작한 서울의 대학생 생활이 어느덧 7년이 흘러 이제는 나름대로 번듯한 직장을 얻어서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려는 아침이었다. L은 주전자의 반쯤 남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시계를 보았다. 아직 새벽 4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오려면 아직도 5시간이 남았다. 다시 자리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어려서부터 유난히 책을 좋아했던 L은 대학에 와서도 정신없이 책을 구입했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책은 몇 백 권씩 늘어났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바로 이사를 할 경우였다. 거의 일·이년에 한 번은 이사를 해야 하는 전세살이였기 때문에 항상 이삿짐이 문제가 됐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의 말을 빌자면 바로 '바윗덩이 같은 책'이 문제였던 것이다. 처음에 전화로 협의를 할 때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혼자 사는 고학생이고 짐의 부피도 얼마 안 된다는 말에 아주 싼 가격에 계약을 했다. 그런데 막상 짐을 옮기려는 순간에는 문제가 발생했다. 책의 어마어마한 무게 때문이었다.

"오전 일을 일찌감치 끝내고 오후에 또 힘을 써야 하는데 이 놈의 책 짐 때문에 힘 다 빠지겠다", "돈을 더 주든지 책 짐만큼은 스스로 옮기든지 하라"는 직원들과의 실랑이는 이사 때마다 반복되는 연례행사가 된 것이다. 어떤 때는 돈을 아끼려 스스로 책 짐을 옮기다가 소나기를 만나 아끼던 책들을 다 버리게 돼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생생하다.

그러나 오늘 L은 누운 자리에서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일년 전부터는 모든 책들을 전자책으로만 구입했고, 예전의 책들 가운데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책들을 많이 처분하였기 때문이다. 종이책이 가지는 물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전자책을 구입해 사용해 오고 있었지만, 막상 오늘과 같은 이삿날에 봉착하자 그때의 선택을 정말 잘 한

것이라 새삼 느끼고 있는 중이다.

"오늘만큼은 바윗덩이 같은 책덩이 때문에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지는 않겠지?", "오늘만큼은 나도 맨날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던 과거와는 달리 편안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겠지?" L은 세상의 모든 평화를 다 얻은 듯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해외로 장기 배낭여행을 떠나는 P

Platform Constraint 극복기

오늘도 P는 방과 후 열심히 인터넷을 뒤적이고 있다. 모레면 꿈에 그리던 배낭여행을 떠나기 때문이다.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한 달 동안 P는 유럽의 구석구석을 다녀볼 심산이다.

"뒀니 뒀니 해도 파리는 뺄 수 없지. 런던은 물론 로마, 밀라노, 그리고 유명한 관광지 꼬모, 베를린, 하이델베르크, 프라하, 부다페스트 등등..."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론 걱정되는 것도 있었다. 적어도 한 달 이상을 체류해야 하기 때문에 먹을거리, 입을 거리, 숙소 등이 걱정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영어도 문제였다. 그런데 모든 여행관련 동아리나 사이트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충고는 배낭여행을 할 때 짐을 최대한 적게, 가볍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P는 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P는 우선 휴대전화는 놓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잠시 후 갈등이 생겨났다. P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전화 기능 외에도 재미있는 책들을 담아 놓고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P는 망설였다. 아무리 여행이 즐겁다고 하더라도 밤에 조용히 앉아, 혹은 하이텔 베르크의 고성에 고즈넉한 그늘에 앉아 잠시 책을 읽고픈 낭만적 충동도 있었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들고 가지나 괜한 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더구나 한 달 이상의 장기 여행이 될 수도 있는데, 적은 용량의 휴대폰에 담을

수 있는 책은 겨우 몇 권이라 실효성도 떨어질 것 같고...”

이런 저런 고민을 하던 차에 갑자기 영어 생각을 하게 됐다. “맞아, 영어 사전도 가져 가야 하잖아!” 그런데 책상에 꽂혀있는 두툼한 영어 사전을 보는 순간 갑자기 정이 떨어졌다. “저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가나?” P는 순간 전자사전이 생각났다.

“그래 이 기회에 전자사전을 구입하자. 가볍고 단어도 빨리 찾을 수 있고” P는 인터넷 쇼핑몰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유명 브랜드인 S전자사전의 최신 모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P의 눈이 번쩍 뜨일만한 광고 구절이 있었다. 그것은 전자책을 지원한다는 기능 소개 문구였다. P는 갑자기 가슴이 설레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P는 용산 전자상가로 달려가 간밤 꿈속에서 그랬던 그 전자사전을 구입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P는 곧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생각해 보니 구입한 전자사전이 전자책을 지원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동안 내가 보아왔던 책들을 전자사전으로 모두 볼 수는 없잖아. 그 수 만권의 책을 이 전자사전에서 볼 수 있게 하려면 죽히 일년은 걸릴 텐데...”

P는 갑자기 풀이 죽었다. 집으로 돌아온 P는 다음날 오후로 예정된 출근에 앞서 그동안 보아왔던 검공인 무협 연재 소설의 마지막 권을 보기 위해 컴퓨터를 켰다. 그 동안 휴대전화로만 책을 보아왔던지라 데스크톱의 전자책 프로그램이 온라인 업데이트를 위해 비교적 오랫동안 구동됐다. 업데이트가 끝나고 최근 공지 사항이 떴다. 무심코 공지사항을 보던 P는 깜짝 놀랐다. ‘최신 S전자사전 CMP1000 모델 지원’이란 문구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P는 내친김에 전자사전을 데스크톱 컴퓨터와 연결하고 전자책을 옮겨 담았다. 아무런 오류 없이 수 백 권의 책을 그대로 옮길 수 있었다. 더구나 신종 전자사전에는 1기가 바이트 용량의 SD카드도 꽂혀있었기 때문에 수 백 권의 책을 옮겨 놓고도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충분히 남아있었다.

“이제는 또 어떤 책들을 더 옮겨 볼까? 그렇지! 유럽 각국을 소개한 전자책들을 모두 전자사전에 담아서 가져!”

P는 전자책 쇼핑몰에서 원하는 각국의 소개 책들을 마음껏 쇼핑하였다. 이 모두를 전자사전으로 옮겨 담았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뿌듯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웠다. 그의 두 손은 가슴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오늘 구입한 전자사전이 놓여 있었다.

성질 급한 S

Lead-Time Constraint 극복기

S부장은 회사에서 급한 성격으로 아주 유명하다. 당연히 부하직원들에게는 기피 대상 1호이다. S부장의 명을 받으면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가더라도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야만 후환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S부장이 회사에서 생존을 하는 이유는 뛰어난 업무 능력 때문이다. 사실 S부장은 부하들에게 성과를 올릴 것을 독려하는 것 역시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S부장은 항상 새로운 책을 탐색하고, 구입해 읽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신입사원 L은 S부장의 부서로 발령 받은 지 이제 갓 한 달이 됐다. 하지만 아직 초년병이라 그런지 S부장의 ‘빨리 빨리’ 고문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P는 한 달 가까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상한 일을 하나 발견했다. 회사에서 가장 예쁘고 싹싹하다고 소문난 P양이 꼭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급히 나갔다가 책들을 한두권 또는 한 묶음씩 들고 들어오는 것이다. L은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더구나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인터넷 서점이 있는데, 왜 굳이 저 예쁜 P양이 무겁게 책을 구입해 들고 올까? 그렇다고 구입해 온 책을 곧바로 읽는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P양에게 개인적 호감도 있었던 L은 검사겸 사 P양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다. 결국 P양에

게 들은 내용은 독자들도 짐작하겠지만 성질 급한 S부장 때문이었다. 즉, S부장은 한두 달 있다가 읽게 될 책들도 그냥 기분이 동하면 그 즉시 구입하고 눈으로 책 표지라도 한 번 보고, 손으로 책장이라도 몇 장 넘겨야만 성질이 풀린다는 것이다. P양의 말을 듣고 L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P양에게 점수를 딸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다.

사실 L도 성질이 무척 급한 편이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급한 일들은 미뤄 놓는 이중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물론 미뤄 놓는 일들은 알고 보면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들이었다.

학창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반드시 작성해야 할 리포트를 마감 하루 전날 작성하기가 부지기수였다. 그런데도 L이 비교적 좋은 학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전자책이었다.

L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하는 지식 검색의 정보가 부실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 검색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것들과 천편 일률적인 보고서들이 양산되는 현실을 직시했다.

결국 책과 같이 깊이 있고 검증된 지식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적어도 보고서를 작성하기 하루 이전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던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대출을 해야 했다. 하지만 L은 전자책 사용자였다. 모든 서점들과 도서관들이 문을 닫은 늦은 밤이라도 책을 구입할 수 있었으며, 당연히 구입한 책을 즉시 읽을 수 있었다. 물론 덕분에 다음 날 마감 전에 보고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며칠 후 L은 용기를 내어 S부장에게 전자책을 사용해 보라고 권유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전자책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동시에 시연까지 했다. 물론 당시 S부장은 시큰둥했다. 결국 이후에도 P양은 변함없이 무거운 책을 회사로 들고 들어와야 했다. L은 상당히 낙담하였다.

“에잇! S부장은 저렇게 시대에 뒤 떨어져서

어떻게 임원 진급을 하겠다는 거야? 오늘은 회식이니까 실컷 술이나 마셔야지”

언제나 폭탄주를 돌리며 회식을 시작하는 S 부장은 그날도 폭탄주를 한 손에 높이 쳐들며 부서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입장 연설을 하였다.

“내가 오늘 폭탄주를 든 김에 폭탄선언을 한다. 앞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더 이상 종이책 구입 심부름은 없다. 얼마 전에 L이 가르쳐준 대로 전자책을 꾸준히 써 보았는데 괜찮더군. 앞으로는 전자책만 사볼 테니 이제 더 이상 책 심부름은 없다”

L은 자신을 따스한 눈으로 바라보는 P양의 시선을 느끼며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바늘을 찾다 지쳐버린 H Haystack Constraint 극복기

신입 대학원생 H는 오늘도 늦은 밤 별들을 바라보며 버스에 몸을 실었다. 부푼 꿈을 안고 대학원에 진학한 지 어언 두 달이 지났다. TV 드라마에서 보던 멋진 세미나 광경과 교수들과의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생각하며 대학원에 진학한 첫 달은 그야 말로 충격이었다. 첫 달 동안 가장 많이 한 일은 논문 복사였다. 요즘 논문은 그나마 인터넷을 통해 파일로 받아 출력하면 되지만, 조금만 기간이 지난 논문들은 교수님과 선배들이 시키는 목록들에 따라서 복사기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에 들어서면서 H는 다시 한번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오히려 첫 달은 단순작업이었지만 두 번째 달은 머리와 눈이 아플 정도로 심신이 고달팠다. H가 맡은 일은 논문의 참조문헌 부분을 다듬는 일이었다. 이는 논문에 공동 저자로 자신의 이름을 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었지만 막상 일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다. H는 공동으로 저작중인 논문의 각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특히 인용문이 나오는 모든 부분들마다 정확한 참조문헌을 찾아서 기록해야만 한다. 이 논문의 주요 저자

는 교수님과 박사과정의 선배들인데, 중요한 내용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는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 논문이나 책 내에서의 정확한 위치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출처 자체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사회과학 전공인 H는 귀가 한 이후에도 ‘게오르크 루카치’, ‘에밀 뒤르케임’, ‘막스 베버’는 물론 ‘탈콧 파슨스’의 방대한 저작들을 쌓아 놓고 씨름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얼마 전 모 유명 포털에서 게시하였다는 ‘책의 본문 검색’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혹시나 하고 H는 유명 포털에다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논문의 인용문들을 조심스레 타이핑한 다음 엔터 키를 눌렀다. 잠시 후 화면에는 글자들이 수두룩하게 떠올랐다. 다시 한 번 마우스 휠을 아래로 돌리다 드디어 찾던 책과 인용문의 위치가 정확히 나타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환호성을 지르고 말았다. 내친 김에 H는 자야 할 시간을 반납하고 작업을 해 모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내일 아침 학교에 가면 놀란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 볼 교수님과 선배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솟았다.

흔들리는 차에선 눈이 아픈 Y Media Constraint 극복기

학창시절 Y는 버스와 지하철에서 수시로 눈물을 흘렸다. 책을 좋아하는 Y,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Y는 등하교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그래서 항상 버스와 지하철에서 책을 읽었지만, 문제는 선천성 난시였다. 난시의 영향으로 인해 버스와 지하철 같이 흔들리는 환경에서는 눈이 쉽게 피로해졌다. 그래서 책을 얼마간 읽다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는 것이 습관이 됐고,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마치 눈물을 닦는 모습으로 착각하곤 했다.

이후 대학에 진학한 Y는 두터운 안경을 벗고 콘택트렌즈를 대신 착용했다. 그런데 콘택트렌즈는 안경 보다 더 불편했다. 눈도 더 피로하고, 피로한 눈을 비빌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항상 식염수를 수시로 눈에 넣었고 그 식염수가 눈가로 흘러 내리면 그 모습은 정말로 우는 것과 같았다. 통학도 여전히 대중교통이었고 그 시간 동안 멍하니 눈을 감고 있기도 정말 싫었다. 작년엔 구입한 MP3플레이어를 이용해 음악을 들으며 통학했지만 웬지 모르게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지난 달 우연히 본 지하철 광고의 전자책은 Y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광고의 문구에 나타난 ‘책 보기가 눈 아픈 사람들에게...’ 라는 카피는 진정 가슴에 와 닿았다. Y는 큰맘 먹고 TTS 기능이 지원되는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바로 전자책을 읽어준다는 그 한마디에 귀가 솔깃했던 것이다. Y는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오면서 마치 MP3 플레이어 사용하듯 귀에 이어폰을 착용했다. 그런데 이어폰의 한 쪽 끝은 여느 때처럼 MP3 플레이어가 아니라 어제 구입한 스마트 폰이었다. 물론 전자책 프로그램을 실행한 상태로. Y는 오늘 밤 내친 김에 각종 책들을 십 여권 구입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스티븐 코비’ 박사의 그 유명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을 열었다. 잠시 후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며 나긋나긋하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성우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읽어서 합성해주는 소리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들어 보니 꽤 괜찮았다. Y는 갑자기 마음이 들뜨고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며 책을 읽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걸어 다니면서도 책의 내용을 들을 수 있겠군”

Y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

